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2-2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필리핀 김대영 선교사님

코비드 시작으로 한국에 귀국한 이후 지금까지 필리핀 재입국 길이 막혀 버렸던 김대영 선교사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며, 한국에서 재정적 어려움 속에도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버텨오신 선교사님의 소식이어서 더욱 기쁩니다.

김대영 선교사님의 편지 전문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기적적인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가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삶에서 큰 사고가 없이 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일상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사치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며 감사와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자가 만료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고 온전한 개방이 된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선교지로 돌아가 새로 선교사 비자로 갱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3월에는 조건 없이 선교지 복귀가 가능해지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고난은 끝나고 찬란한 승리의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종말 때의 대환난도 정한 기간 후에는 끝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성도의 고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고 찬란한 영광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되게 살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래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았어도 오늘 먹을 양식은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내일도, 우리의 내일도 오늘처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9 장11 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 꿈과 비전이 이뤄질 시기와 기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때가 순조롭게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을 뿌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믿고 기도해야겠지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선교지가 조건 없이 활짝 열리고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2. 연합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19로부터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3. 선교지 교회와 교우들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신실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로 축복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 아내 이수미 선교사가 갑상선 수술 후 많이 힘들어 하고, 우울증 증상까지 있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5. 딸 (김하은)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혼자 공부와 일을 병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2-2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르완다 닉 피롤로 선교사님



르완다는 올해로 NCM (New Creation Missionary: 새창조 선교) 사역 30 주년을 맞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동안 기도로 동역해온 교회들과 함께 할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닉 선교사님께서는 그곳 선교사님들 가족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 월 말경에 어린이들 약 50-60 여명을 포함한 120 명 규모의 쿼비야 컨퍼런스(Kumbya Conference)를 키부 호수에 있는 수련회장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VBS 교사 10 명, 강사 (성인대상), 찬양 인도자 등의 봉사를 해줄 분들을 찾고 계시고, 저희 교회도 동참해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르완다 선교 30 주년 기념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선교부에 연락주시면, 자원하시는 분들을 모아 팀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온가족이 코비드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한 닉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30 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르완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주세요.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공통기도>

-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비드로 인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영육이 모두 강건하시도록

감비아	한병희	국제학교건물 증축, 샤머니즘과 토속신앙과 고투하는 교우들의 믿음. 사모님의 완전한 치유와 빠른 회복을 위해.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정치적 불안정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영주권 연장.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LIR) 정부 승인과 적합한 교장선생님 청빙을 위해.
스리랑카	정은범	자가격리 중인 동역자 선교사 가족들의 건강, 지방교회 목회자들의 강건함
아리조나	모니카 리	교인들의 가정들이 믿음안에 서고, 마약과 범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필리핀	김대영	3 월 필리핀 입국 절차가 순조롭도록, 필리핀 교회의 영적인 굳건함
T 국	장과장 & 주열매	리더 훈련중인 H 형제 가정이 잘 양육받을수 있도록
CRU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리더쉽 프로젝트 사역들. 선교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코스타리카	금상호	바른 복음의 재교육, 인디오 지역의 구제와 말씀 사역